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China COSCO Shipping, 향후 3년간 처리물량 1위 유지 예상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노딜 브렉시트 강행 시 영국의 對 EU 수출 160억 달러 감소
2. CEVA Logistics, 베트남 현지 운영규모 두 배로 확대
3. 상하이해운거래소와 CargoSmart, 새로운 해운지수 개발 합의
4. 앤티워프항, 아마존과 드론 활용 테스트 실시

명사 스피치

“유독 디지털화가 더딘 운송업계에서 운송 프로세스만 최적화 시켜도 물류비용 전반을 절감시킬 수 있다.”

박준규 로지스팟(주) 대표
(2019. 8. 28. / ZD Net Korea 기사)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China COSCO Shipping, 향후 3년간 처리물량 1위 유지 예상

GTO/ITO 예상 처리물동량(2017~2022) (단위: 백만 TEU)

처리능력순위			GTO/ITO	'17	'18	'19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	'17~'22 처리능력 증가율 (%)
	'17	'22									
1	(1)		China Cosco Shipping	110.4	116.6	128.4	130.5	131.6	131.6	3.6	21.2
2	(2)		Hutchison Ports	110.3	111.9	114.4	112.9	113.9	113.9	0.6	3.6
3	(3)		PSA International	104.3	110.8	112.5	111.3	114.8	114.8	1.9	10.5
4	(4)		APM Terminals	101.7	103.7	105.8	110.7	112.3	112.3	2.0	10.7
5	(5)		DP World	86.9	88.0	87.0	89.5	91.0	91.0	0.9	4.0
6	(6)		Terminal Investment Limited(TIL)	57.4	58.0	60.3	60.3	61.7	61.7	1.5	4.3
7	(8)		China Merchants Ports	40.8	42.8	43.7	44.5	44.5	44.5	1.7	3.7
8	(7)		CMA CGM	37.8	41.4	42.5	43.7	44.7	44.7	3.4	6.9
9	(10)		Eurogate	24.3	24.3	24.9	25.4	25.7	25.7	1.1	1.3
10	(11)		SSA Marine	19.7	21.4	21.4	21.4	21.4	21.4	1.7	1.7
	(9)		ONE			36.1	36.1	36.1	36.1		36.1
11	(22)		NYK	17.7	28.1	2.2	2.2	2.2	2.2	-34.0	-15.5
17	(20)		MOL	9.6	10.0	2.0	2.0	2.0	2.0	-26.7	-7.5
21	(21)		K Line	4.0	4.3	1.5	1.5	1.5	1.5	-18.1	-2.5
12	(13)		Evergreen	16.6	17.2	17.2	17.2	17.2	17.2	0.7	0.6
13	(12)		ICTSI	15.7	18.5	19.3	19.6	19.8	19.8	4.7	4.0
14	(15)		Hyundai	11.1	12.4	12.9	12.9	12.9	12.9	3.0	1.8
15	(17)		OOCL	10.3	10.1	0.0	0.0	0.0	0.0	-100.0	-10.3
16	(16)		Yildirim/Yilport	10.2	10.3	11.0	11.3	11.9	11.9	3.3	1.8
18	(18)		Yang Ming	8.9	8.9	8.9	8.9	8.9	8.9	0.0	0.0
19	(14)		Bollore	8.9	9.7	10.8	12.0	13.1	13.1	8.1	4.2
20	(19)		SAAM puertos	4.8	4.7	4.8	4.8	4.8	4.8	0.2	0.0

자료 : Drewry Maritime Research.

- 글로벌 해운컨설팅기업 Drewry에 따르면 2017~2022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처리능력을 확충할 예정인 GTO는 China COSCO Shipping(2,120만 TEU)으로 나타남
 - 상위 10대 GTO들은 약 9천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 상위 10대 GTO 순위 또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China COSCO Shipping은 중국 내 주요 컨테이너터미널 지분확보를 기반으로 아시아 주요국과 유럽, 북미 등의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또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참고자료 : Drewry Maritime Research,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2018, (검색일: 2019.9.9.)

김가현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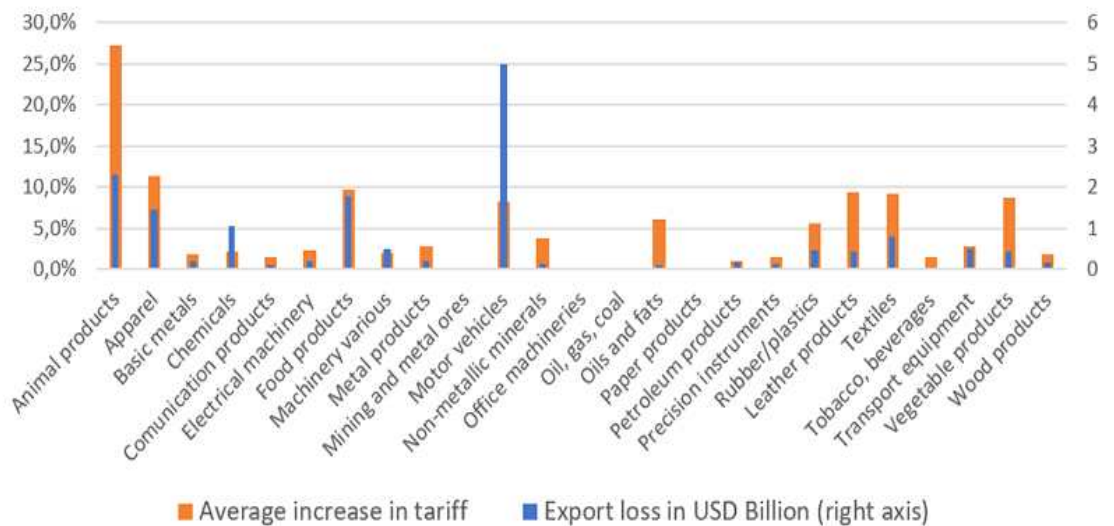
051-797-4692, ghkim@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노딜 브렉시트 강행 시 영국의 對 EU 수출 160억 달러 감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영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힘
 - 9월 3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강행될 경우 對 EU 수출이 연간 16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 추산했음
 - 추산된 금액은 영국의 對 EU 전체 수출금액의 약 7% 정도에 달함
 -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현재 영국 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율 0%를 최혜국 수준으로 변경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며, 만약 비관세 장벽 복원, 국경 통제, 기존 영국-EU 생산 네트워크 붕괴 등이 발생된다면 영국의 수출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음
- 자동차, 축산물, 의류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 추산된 수출 감소액 중 자동차가 약 5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축산물과 의류가 각각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전망했음

EU시장에서의 영국 수출 손실



- EU 회원국들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협정을 영국이 복원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이후 수출 감소 지속 전망
 - 현재 EU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의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베트남 등과 FTA를 진행중이며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은 추가 FTA 혜택에서 배제되어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www.unctad.org / www.reuters.com 2019.9.9.

CEVA Logistics, 베트남 현지 운영규모 두 배로 확대

- 2019년 8월 30일 CEVA Logistics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신규 시설을 오픈하면서 현지 운영 규모를 두 배로 늘림
 - 신규 시설은 베트남 최대 공항인 탄 손 닛(Tan Son Nhat) 국제공항의 두 화물 터미널과 인접해 있으며 캣 라이(Cat Lai) 컨테이너항과도 가까이 위치함
- CEVA Logistics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베트남의 호치민과 수도 하노이에 오래 전부터 진출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베트남의 경제 성장으로 CEVA의 화물운송 및 계약물류 사업이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고객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신규 시설 확보가 불가피했음
-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세계 경제대국들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어 동남아에 제조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수출입 허브이자 전략적인 목적지임
 - 2016년 베트남은 EU 및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년간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6.5%를 유지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전망함
- CEVA Logistics의 니콜라스 사르티니(Nicolas Sartini) CEO는 자사의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베트남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신속하게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베트남 및 그 외 지역에서 고객의 사업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s://www.cevalogistics.com/> 2019.8.30.

<https://www.ti-insight.com/> 2019.9.3.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상하이해운거래소와 CargoSmart, 새로운 해운지수 개발 합의

-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해운지수 제공업체인 상하이해운거래소(Shanghai Shipping Exchange)와 선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argoSmart가 최근 새로운 해운지수(shipping index)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새로운 해운지수는 해상운송 스케줄의 안정성(reliability)을 나타내는 지표로 화주들이 요구하는 공급망의 최적화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개발될 해운지수는 주요 해상운송 항로의 스케줄 안정성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 화주가 그들의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는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고객의 요구, 시장 상황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한 고객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반영할 계획임
- 상하이해운거래소는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및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등 전 세계 해운시장에 최신의 해상운임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음
- 또한 CargoSmart 역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케줄 안정성을 위한 지수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CargoSmart는 전 세계 16,000척의 선박, 1,400개의 컨테이너터미널, 전 세계 해상무역의 85%를 차지하는 3,000여개의 항로 등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ellenic shipping News 참조, 2019.9.6. 검색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앤티워프항, 아마존과 드론 활용 테스트 실시

- 앤티워프 항만이 Amazon Prime Air와 DronePort 등과 함께 실제 항만 환경에서 동시드론 (Simultaneous Drone·군집드론으로 해설될 수 있음) 활용 테스트를 실시함
 - 본 테스트는 SAFIR(Safe and Flexible Integration of Initial U-Space Services in a Real Environment) 컨소시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SAFIR에는 Amazon Prime Air, Avillant, C-Astral, DronePort, Elia, Explicit, Helicus, 앤티워프 항만, Proximus, SABCA, Skeyes, Tekever, Unify가 참여하고 있음
- 이번 테스트는 유럽연합의 모든 항공교통관리 관련 연구개발을 조정하는 기관인 SESAR에게 드론과 관련된 민관협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음
 - 특히 드론의 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용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법제화 과정에 기여했다고 함
 - 앤티워프 항만의 Erwin Verstraelen 디지털 정보 및 혁신 책임자는 드론이 앤티워프항의 디지털 신경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했으며, 자율 드론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많은 항만 활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항만 공동체 전체에 많은 이점을 줄 것이라고 함
- SAFIR의 U-Space는 유럽 전역의 항공 운송 및 교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프레임워크임
 - 2019년 말 U-Space의 첫 번째 기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럽 생태계 내에서의 다양한 드론의 미션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드론의 일부 미션은 명확한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없어 제한되고 있음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Port of Antwerp & Amazon Test Simultaneous Drones, 2019.9.6.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